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빛’으로 한몽 교류 담았다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서 개인전

20일까지 칭기즈칸 국립박물관
신작 ‘한몽의 빛’ 등 10점 전시
‘찬란한 빛의 고고학’ 주제로
‘한국-몽골’ 문화 연결·이해의 장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몽골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에서 개인전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작가는 ‘2025 한국-몽골 수교 35주년 해’를 기념해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에 명예 초대 작가로 참여했으며, 지난 8일부터 칭기즈칸 국립박물관 8·9층에서 신작 4점을 포함한 1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지평선 너머, 달 아래에서’를 주제로 열린 비엔날레에서 장소와 고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개인전으로 마련됐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찬란한 빛의 고고학’을 주제로 한국과 몽골의 이야기

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내고자 했다. 전시 현장은 전통과 미래, 자연과 문명,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는 철학을 담은 작품들로 꾸며졌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해와 달이 마주 보도록 설치된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몽골 비엔날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작가의 신작 ‘한몽의 빛’이다. 이 작품은 한국과 몽골이 서로 다른 곳에서 해와 달을 바라보지만 결국 같은 빛을 본다는 점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자연관과 세계관이 빛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시아 산수화의 미감을 활용한 연출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빛의 의미를 드러낸다.

또 다른 신작 ‘상상된 경계들-지평선 너머’는 동아시아 고전회화 65인치 5점을 병풍처럼 재구성해 동서양을 넘어 다양한 문명이 어우러지는 초월적 세계관을 펼쳤다. 한국과 몽골의 유구한 문화 가치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경



몽골 현지인들이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에서 이이남 작가의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이남스튜디오 제공

과 문명, 인류가 하나 되는 현대사회의 이상향을 예술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8층에 전시된 ‘지평선 너머’는 이 작가의 고향인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과 병풍

산을 목죽도와 산수화에 연결한 작품이다. 여러 겹으로 포개진 대나무 숲 영상은 이 작가가 그간 선보여온 목죽도 영상에 새로운 색을 입혀 거대한 산수의 무대를

완성했다. 이 작품은 김하중이 19세기 말 조선의 자연을 그린 ‘해산도첩’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해 전시 공간을 가득 메우는 영상 설치로 완성됐다. 한국과 몽골의 다채로운 풍경이 하나로 섞이며 관람객들이 각자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작가의 ‘지평선 너머’는 전시가 끝난 뒤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에 공식 소장될 예정이다. 박물관 측은 이번 소장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란바토르시 역시 이 작가와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작가는 “전통과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로 한국의 예술적 정체성과 동양적 세계관을 몽골 현지에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전시 주제인 ‘빛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단순한 작품 관람을 넘어 문화적 포용의 의미로 관람객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홍어 장수 문순득 삶 기리는 ‘신안국제문페스타’

19~22일 우이·도초·흑산도 일대서
‘섬 로드 스푼라’ 등 프로그램 다채

조선시대 가장 긴 표류 기록을 남긴 홍어 장수 문순득의 삶과 여정을 기리는 ‘2025 신안국제문페스타’가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도초도·흑산도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문페스타는 ‘섬을 배우고, 섬에서 즐기다’를 슬로건으로, 참가자들이 세 섬

을 이동하며 문화와 생태, 예술을 체험하는 ‘섬 로드스푼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문순득의 생가가 있는 우이도에서 시작해, 도초도와 흑산도를 차례로 방문해 섬의 역사와 삶을 배운 예정이며 △전문가 해설 △즉흥 공연 △섬놀이 체험 등을 통해 여행자와 섬 주민이 교감하는 색다른 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찬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묻다

23일 오후2시 DJ센터 ‘이슈포럼’
李 정부 지역문화정책 연계 조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속 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주제로 제26차 문화도시 이슈포럼을 개최한다.

1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광주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담론의 장으로, 지역 문화 전문가와 시민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1년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 현재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 공약에 대비한 정책 방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유치, 광주만의 역사문화자원과 AI 기술을 융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5·18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재해석과 세계화, K-컬처와 연계한 글로벌 문화도시 광주 실현과 같은 전략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조성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도

제기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정’ 설립을 통해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의 공약과제와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김성배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장),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고도화 및 국립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순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류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역 고유 문화 발굴과 세계화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광주는 AI 기술, 인문학, 문화예술이 융합된 미래형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광주 미로극장서 연극 ‘늦은행복’ 개막

“빈곤 속 노년의 삶 조명”

노부부의 애뜻한 사랑과 삶의 성찰을 담은 연극 ‘늦은행복’이 오는 26~28일 광주광역시 동구 미로극장 2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2025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연극제 초청작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극단 Y의 김민호작가가 연출을 맡았으며 박규상, 윤미란, 정순기, 김경옥 배우가 출연해 무대를 채운다.

연극 ‘늦은행복’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노인의 삶을 진지하게 조명한다. 치매에 걸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와 암에 걸린 남편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통해, 관객들은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와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된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공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현재의 순간이 곧 행복임을 일깨운다.



극단 Y가 오는 26~28일 광주광역시 동구 미로극장에서 선보이는 연극 ‘늦은행복’.

극단 Y 제공

극단 Y 관계자는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 연극은 삶의 본질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화두를 던질 것”이라며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한편 공연은 26~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진행되며, 일반 관람료는 2만원, 학생은 1만원이다. 박찬 기자

“한국전쟁서 피어난 음악 이야기 들어보세요”

국립남도국악원, 25일 진도서
이경분 음악학 박사 초청 강의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마지막 공연을 ‘한국전쟁과 음악’을 주제로 오는 25일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한 옥주굴 창작소에서 개최한다.

16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이다. 마지막 공연 강의자로는 음악학 박사인 이경분이 무대에 오른다.

이경분 강의자는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음악학 박사로서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및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수용소와 음악’, ‘망명음악 나치음악’ 등의 저서를 발간하며 그간 전쟁과 음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다. 박찬 기자

이 강의자는 한국전쟁과 음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당시 한국음악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전쟁 포로의 노래, 월북한 음악가들을 들려주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연을 꾸밀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무대에 나서 이진호 단원의 작곡가 중 ‘군사철움’ 대목을 시작으로 변정섭 단원의 ‘태평소 능계가락’, 정유정 단원의 ‘아리랑타령’, ‘노들강변’ 등을 선보인다.

또한 강의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강의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제한된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로만 접수를 받는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